

아니쉬 카푸어 4년만에 한국 개인전..."물성이 창출하는 비현실적 차원 다뤄"

August 31, 2016 | 심혜리 기자

Page 1 of 2



방한한 아니쉬 카푸어가 서울 소격동 국제갤러리에서 전시 중인 자신의 연작 작품인 '비정형' 앞에 서있다.

물질이 갖는 정신성을 탐구해온 현대 미술의 거장 아니쉬 카푸어(62)가 한국에서 '군집된 구름(Gathering Clouds)'이라는 제목의 개인전을 갖는다.

인도 출신의 영국 조각가 카푸어는 31일 전시회를 갖는 서울 소격동 국제갤러리를 찾아 "구름은 비현실적인 요소가 담겨있는 오브제"라며 "물성이 만들어내는 초월적, 정신적 요소가 반영된 작품"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전시는 크게 두 파트로 나뉜다. 스테인리스 강철을 뒤편 형상인 '트위스트'·'비정형' 시리즈와 까만 안료를 칠한 반구 연작인 '군집된 구름'이다. '트위스트'·'비정형' 연작은 거울과 같은 표면을 가진 작품으로 비치는 모든 것을 다 반사한다. 강철에 뒤틀림을 가해 표면에 오목한 공간을 만들었다. 반면 '군집된 구름'에 칠해진 빈틈없는 까만색은 모든 것을 흡수한다. 카푸어의 대표작품 '하늘 거울'의 형상을 띠고 있지만 질은 검은색으로 표현돼 깊이를 알 수 없는 불가사의한 심연을 떠올리게 한다.

카푸어는 "물질의 물리적 본성에 아주 작은 변화를 가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어떻게 사물을 이해하는가, 라는 지각이 전환된다"며 "그것이 바로 예술이 가지고 있는 더 깊은 차원의 목적이다"라고 말했다.

발표되는 15점의 작품은 모두 신작이다. 한국에선 2012년 리움 전시 이후 4년만이다. 지난해엔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 정원에서 대규모 설치 작품 '더러운 구석(Dirty Corner)'을 전시했다.

물성이 비현실적인 차원을 창출한다는 주제는 그의 작품에서 반복되는 화두다. 그는 "물질과 비물질이 결합해 흥미로운 현상을 만들어낸다"며 "예술의 가장 고차원적인 목표는 실체가 없는 무형의 것이지만, 현실세계에선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지점은 물리적인 속성이 있는 곳까지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초 영국 기업이 개발한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검은색 안료인 '반타 블랙(Vanta Black)'을 해당 개발팀과 협업해 곧 자신의 작품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빛의 99.96%를 흡수해 사실상 '완벽한 검은색'으로 알려진 반타 블랙의 예술적 사용 권한은 현재 카푸어가 독점하고 있다.

카푸어는 "반타 블랙은 새로운 종류의 물질로 우주에서 블랙홀 다음으로 가장 어두운 검은색이라고 한다. 저는 그 물질과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신화적 측면에 매우 관심이 많다. 너무나 가까워서 거의 비물질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심지어는 존재하지 않고, 표현할 수 없다고 느껴질 정도의 색이다. 마치 꿈같은 그런 비현실적인 느낌을 주는 색이다. 아직 저의 작품에는 사용하지 않았다. 그 물질을 사용하기 위해 현재 개발팀과 연구 중이다. 수년 내 가능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인도 뭉바이 태생의 카푸어는 영국 혼지 예술대학교와 런던 첼시대학교에서 조각을 전공하고 1990년 44회 베니스비엔날레 영국 대표 작가로 참여했다. 이듬해 '터너상'을 수상하면서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다. 뉴욕 현대미술관, 런던 테이트모던, 밀라노 프라다 파운데이션, 스페인 빌바오 구겐하임 등에 작품이 소장돼 있다.

국제갤러리에서 오는 10월 31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카푸어가 한국에서 갖는 네번째 개인전이다.